

미리 보는 10년 후 우리 양돈산업

- 향후 10년간 세계 양돈시장의 변화와 전망

사료와 육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집중화 · 계열화



정 찬 길 박사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장

경 제 협력과 발전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식량농업기구(FAO :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식량농업정책연구소(FAPRI :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그리고 미국농무성(USDA : 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은 세계 돼지고기 생산, 소비, 무역이 향후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기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생산성 향상과 대량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는 돼지고기 수출국들 간의 강력한 경쟁으로 돼지고기의 국제가격 상승이 상당수준 억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돈산업의 구조

변화와 기술의 개선은 생산증가를 촉진하고, 따라서 장래 가격 증가 추세는 억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다수의 수출공급자들과 육류간의 격심한 경쟁은 세계의 돼지고기 가격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돼지고기 주요 생산국들에서는 닭고기 산업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유사한 구조조정이 사료와 육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집중화와 계열화 형태로 확산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조정은 돼지고기의 생산성 향상을 촉발할 것이다.

돼지고기 수출국들의 생산이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양돈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증산이 될 것이다.

특히 구제역 발생으로 크게 위축을 받았던 유럽국가에서 돼지고기 산업이 많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럽연합국가들의 돼지고기 생산은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는데 강화된 환경규제와 정체된 돼지고기 수요가 투자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 돼지고기의 생산은 지난 10년 보다 낮은 비율인 13~17%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돼지고기 산업은 생산능력의 증대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주요 수출국들의 고도의 생산집중화는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생산비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돼지고기 생산 확대는 많은 국가에서 닭고기와의 심한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강화된 환경규제와 동물복지로 인하여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FAPRI와 USDA의 관측에 의하면 향후 7년 동안에 걸쳐 돼지고기의 생산증가는 10~13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증가 분은 주로 중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이며, 특히 이중 약 50%는 중국에 의



▲돼지고기 주요 생산국들에서는 닭고기 산업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유사한 구조조정이 사료와 육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집중화와 계열화 형태로 확산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양돈산업이 영세한 자족 경영에서 전문화되는 중·대 규모의 경영으로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과 EU에서는 돼지고기 생산 증가는 매우 낮을 것이다.

일본의 돼지고기 생산은 감소할 것인데, 지난 10년보다는 훨씬 낮은 감소율을 보일 것이다.

EU, 미국, 캐나다, 일본의 돼지고기 시장은 소득 상승과 인구 증가의 전망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국가들에서의 더딘 소비신장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일반 경제여건의 개선과 저렴한 가격 기대로 인한 높은 증가로 상쇄될

것이다.

그런데, 멕시코, 브라질, 중국의 2000~2008년 돼지고기 총소비량은 약 18%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의 돼지고기 산업의 전망은 생산회복 국면이 경제개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급사이드와 소비성장이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소득분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측면에서도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OECD, FAO, FAPRI, 그리고 USDA는 러시아의 돼지고기 생산의 더딘 회복 때문에 돼지고기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러시아의 양돈산업의 영세한 규모의 문제, 제한된 사료곡물의 공급, 허부구조와 제

향후 10여년에 세계 돼지고기 산업에 가장 큰 변혁은 중국이 2005년을 기점으로 돼지고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 만일 지구상에서 총사육두수의 약50%의 가장 많은 돼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돼지고기 수출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그 파생적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돼지고기 산업의 생산, 유통, 가공분야에 있어서 집중화, 수직계열화, 생산성 개선을 통한 현저한 구조조정이 북미와 캐나다의 경쟁력을 크게 고취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적 제약 때문에 돼지고기 생산회복을 둔화시킨다.

반면에 돼지고기 국내 수요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제전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돼지고기 순수입은 2008년까지 100,000톤이 증가한 400,000톤에 이를 것이다. 돼지고기의 총 교역은 FAO의 관측치인 17%로부터 FAPRI 관측치인 26%, USDA의 29%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008년까지 약 600,000톤의 추가 수입수요량). 예측기간에 돼지고기 무역의 증가는 주로 아시아의 수입국들(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등의 수입국가들의 높은 수입 수요에 의한 것이다.

일본이 앞으로 순수입량이 1백만톤에 달해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의 수입국가로 부상될 것이다.

그러나 수입신장은 과거 10

년에 비하여 국내 생산 감축의 둔화 때문에 훨씬 더딜 것이다.

인구팽창과 소득수준의 개선은 국내생산이 빈약한 생산하부구조와 분산문제에 인하여 크게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돼지고기 수입수요를 폭발시킬 것으로 FAPRI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USDA and OECD의 관측은 멕시코의 돼지고기 산업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향후 10여년에 세계 돼지고기 산업에 가장 큰 변혁은 중국이 2005년을 기점으로 돼지고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 만일 지구상에서 총사육두수의 약50%의 가장 많은 돼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돼지고기 수출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그

파생적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만의 돼지고기 수입은 소비증가가 구제역 발생이전의 수준을 훨씬 밀돌 국내 생산증가를 압도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머지 않아 한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회복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순수입량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

OECD, FAO, FAPRI, 그리고 USDA는 북미의 신장하는 수출 주도적 저비용 돼지고기 생산산업이 앞으로 세계돼지고기무역 순증가량의 대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산업의 생산, 유통, 가공분야에 있어서 집중화, 수직계열화, 생산성 개선을 통한 현저한 구조조정이 북미와 캐나다의 경쟁력을 크게 고취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돼지고기 수출국들이 세계 돼지고기 수출시장, 특히 멕시코, 브라질, 한국 시장에서 부상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출국인 EU 대신에 시장점유를 확대 할 것이다. **양돈**